

3분기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장 희비 엇갈릴 듯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주요한 축이다. 따라서 정보의 저장·관리·가공·유통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명실공히 지식정보사회의 기간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 실시한 '3분기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DB-BSI) 및 이용환경지수(DB-CSI)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글 김정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DB-BSI)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이 느끼는 경기 체감 정도를 계량화한 척도로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경기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한 지수이다. DB-BSI는 100을 기준으로 하여 99까지는 경기 하락을, 101에서 200까지는 경기 호전을 의미한다.

※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산출 방식

$$BSI = \frac{(\text{매우호전}) 1.0 + (\text{호전}) 0.5 - (\text{약화}) 0.5 - (\text{매우약화}) \times 1.0}{4} \times 100 + 100$$

* 0 ≤ BSI ≤ 200

2분기 DB산업 경기 소폭 하락, 전반적으로 어두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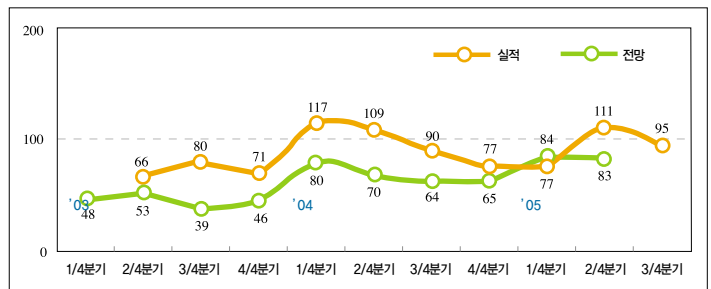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데이터베이스 산업체 3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DB-BSI에서 2분기 경기실적은 소폭 하락했고, 3분기 경기전망도 기준치(100)에 못 미치는 침체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전망BSI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전망했고 2005년 2분기를 기점으로 잠시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3분기에 다시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상반기 일시적인 경기 호전이 예상됐으나 기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및 외부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실적BSI와 전망BSI에 대한 실현율(실적치가 전망치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과 일치정도(실적치와 전망치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변동계수(0.496)는 실현율을 나타내는 수치의 변동계수(0.223)에 비해 2배 큰 것으로 나타나 4배를 나타냈던 2분기에 비

〈그림 1〉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기별 실적 및 전망 BSI 변동 추이



해 다소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적과 전망에 대한 기대치간 높은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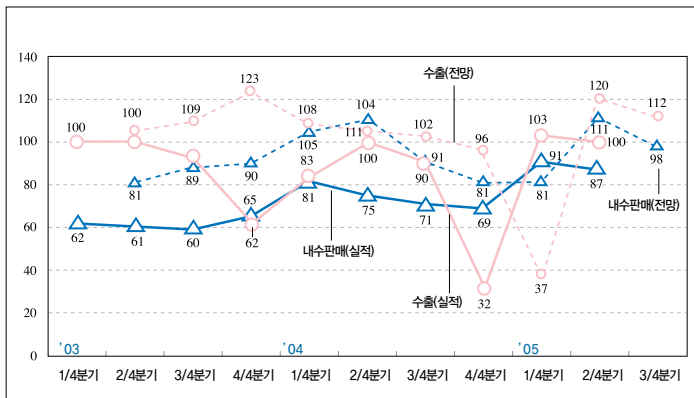
2분기 실적BSI는 2005년 1분기 실적BSI(84)에 비해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분기별 실적BSI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 1분기 이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잔물결현상을 보이면서도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조사 이래 단 한번도 기준치(100)에 도달하지 못해 경기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수 부진 불구, 수출 호전 전망

실질 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수판매실적 BSI는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치(87)로 나타나 다소 침체 국면에 빠져있다. 이렇듯 내수경기실적의 부진과 더불어 내수경기전망도 1분기 실적 조사당시 2분기 내수 경기호전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3분기 내수경기에 대해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자들의 내수 경기에 대한 전망도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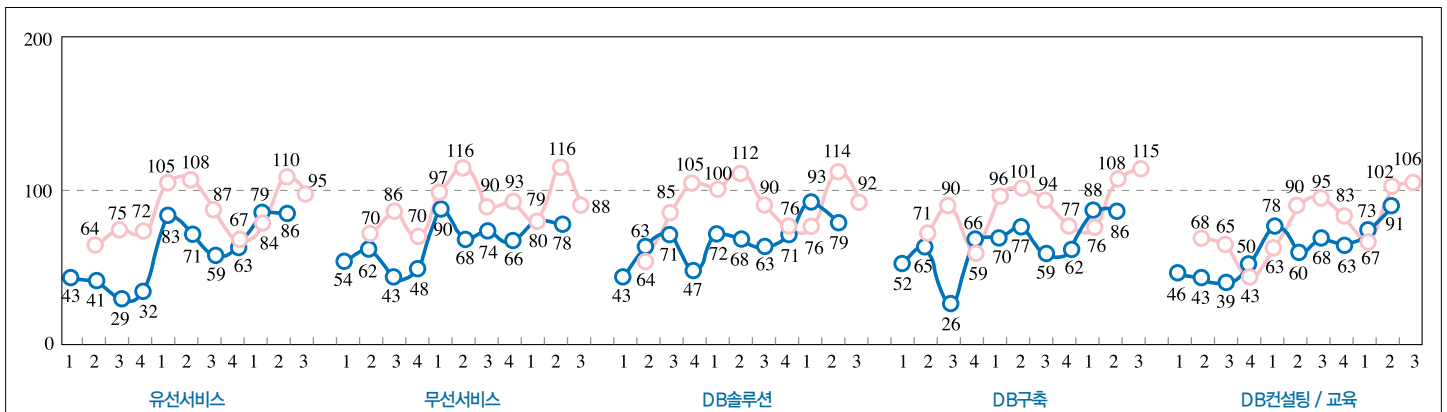
반면 수출실적 BSI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기준치(100)로 나타나 1분기와 비슷한 호전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전망BSI도 호전폭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기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출경기는 당분간 호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산업 경기수준 판단 BSI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보면, 2003년 이래 내수경기는 한번도 기준치(100)에 도달하지 못하며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수출경기는 기준치(100)를 넘어서는 호전을 전망하고는 있으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내수경기의 침체와 수출경기의 불

<그림 4>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별 DB-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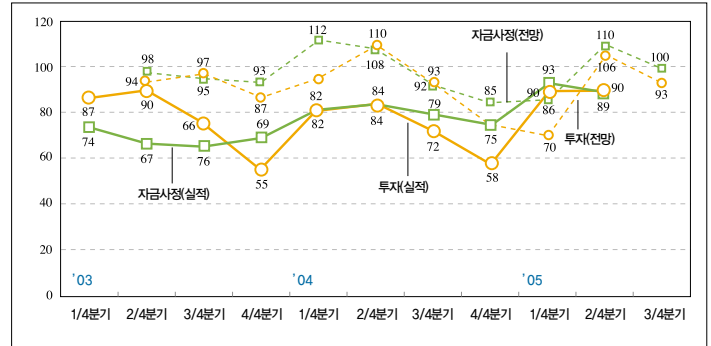


안정으로 투자심리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투자 위축 현실화

이와 같은 내수경기의 부진은 기업경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금사정BSI와 투자BSI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데이터베이스 산업체 기업경영 판단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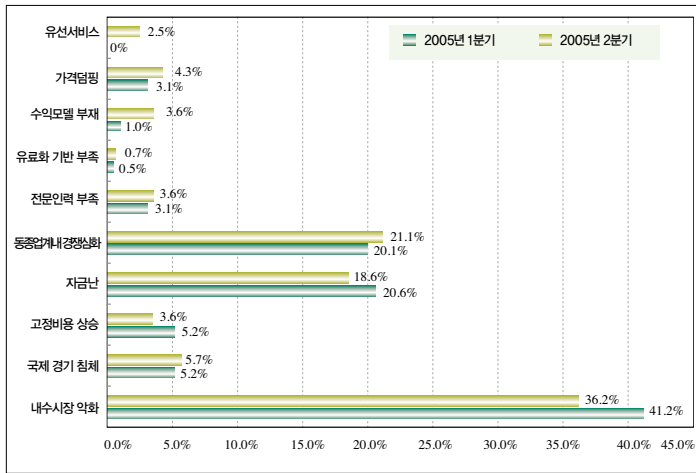
기업 내부요인에 해당하는 자금사정 및 투자에 대한 2분기 실적 BSI는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고 3분기의 투자전망BSI도 93으로 나타나 2분기의 투자확대 전망이 3분기에는 투자위축 전망으로 반전됐다.

이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수출경기의 불안정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당초 기업의 투자를 높이고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금리인하정책을 시행했으나 내수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상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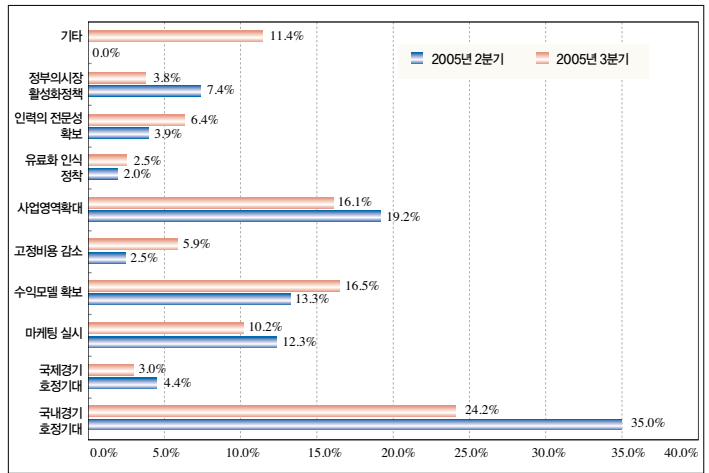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별 BSI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분야별 BSI를 비교해 보면, 종합경기실적에 있어서는 유선서비스와 DB컨설팅·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에 있어서도 DB구축과 DB컨설팅·교육 부문 경기는 호전세를 전망하고 있으며 유·무선서비스와 DB솔루션 부문은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DB구축 전망BSI는 올해 1분기 76에서 2분기 108, 3분기 115로 호전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DB컨설팅·교육 분야 또한 1분기 이래 계속 호전세를 전망하고 있어 종합경기전망의 호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유·무선서비스와 DB솔루션 부문은 2분기 호전 전망이 3분기에는 모두 기준치에 못 미치는 하락세로 전망됐다.

〈그림 5〉 2분기 경기침체 주요요인



〈그림 6〉 3분기 경기호전 전망 주요요인



2분기 경기 침체의 주요요인 기업외부환경이 57% 차지

데이터베이스 산업체들은 2분기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내수시장의 약화(36%)'와 '동종업계 내 경쟁심화(21%)'를 꼽아 기업외부 환경요인이 57%를 차지했다. 그 외 '자금난', '수익모델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이 26%였으며, 기타의견으로 '국내 정책의 부재', '금리문제' 등을 꼽았다.

3분기 경기호전 전망의 주요요인으로 기업 내적요인이 32% 차지

이러한 경기침체 요인에도 불구하고 3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24%)'를 3분기 호전전망의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수익모델 확보', '사업영역의 확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마케팅실시' 등과 같은 기업내부 요인이 49%로 경기호전을 전망하면서 기업내부 역량강화를 통해 침체탈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환경지수 상승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호전 전망

데이터베이스 이용환경지수(이하 DB-CSI)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내용 등을 지수로 환산한 지표로써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이용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DB-BSI와 더불어 경기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DB-CSI는 100을 기준으로 하여 99까지는 이용환경에 대해 만족하

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01에서 200까지는 이용환경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이용환경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CSI)) 산출 방식

$$CSI = \frac{(매우호전 \times 1.0) + (호전 \times 0.5) - (악화 \times 0.5) - (크게악화 \times 1.0)}{\text{총 응답자수}} \times 100 + 100$$

* 0 ≤ CSI ≤ 200

2분기 DB-CSI는 1분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으며, 전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 항목에서 성장폭이 다소 감소했으나, '이용료 지출'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들은 기준치를 넘어서는 호전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항목별로는 '정보의 질과 양'은 128에서 123으로, '이용 편의성'은 124에서 117로, '이용빈도'는 125에서 119로 나타났으며 '접근 편의성'은 128에서 123으로 나타나 이용료 지출을 제외한 전 항목의 만족도가 1분기의 호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망 CSI는 '이용료 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120이상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의 호전세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분기 들어서면서 산업전반의 소비위축 현상의 영향으로 DB이용자들도 '이용료지출'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3분기 '이용료 지출' 전망에 있어서는 기준치를 웃도는 103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소비위축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보·콘텐츠의 이용료 지불에 대한 이용자 인식은 점차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7〉 분야별 DB-CSI

